

LPGA 투어 태극낭자들 역대 최다승 도전

‘슈라이트클래식’ 김인경 정상 오르며 시즌 7승 달성... 13개 대회 중 절반 이상 우승 차지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국선수들의 활약상이 어느 해보다 뜨겁다. 현재 치른 대회 가운데 절반 이상 우승을 가져오며 역대 한시즌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지난 5일 끝난 ‘슈라이트 클래식’에서 김인경(29·한화)이 정상에 오르며 이로써 한국은 시즌 7번째 승리를 따냈다.

태극낭자 군단은 2월 HSBC 한다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장하나(25·BC카드)를 시작으로 ▲양희영(28·PNS창호) 혼다 타일랜드 ▲박인비(29·KB금융그룹) HSBC 챔피언스 ▲이미립(27·NH투자증권) 기아 클래식 ▲유소연(27·메디힐) ‘ANA 인스퍼레이션’ ▲김세영(24·미래에셋)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등이 차례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전체 35개 대회 일정 가운데 13개 대회를 소화하며 아직 반환점을 한 참 남겨두고 있지만 7개 대회 타이틀을 한국선수가 차지했다.

절반이 넘는 7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54%의 승률을 기록 중이다.

수치상 지금의 페이스라면 19승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역대 한 시즌 최다승인 지난 2015년 15승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최다승 기록은 충분히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매 대회 우승자의 얼굴이 다른 것도 최다승을 기대케 하는 요인이다.

최다승을 세운 2015년 당시 우승을 차지한 한국선수는 총 9명이었다.

15승 중 박인비(5승)와 김세영(3승)이 8승을 합작하며 최다승 기록 달성을 주도



사진 왼쪽부터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자 유소연·‘HSBC 챔피언스’ 박인비·‘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김세영

했다. 나머지 7명이 1승씩을 나눠가졌다.

올 시즌 7승 중 2승 이상을 챙긴 선수는 없다. 이들 가운데 박인비와 김세영은 시즌 다승 경험이 있다.

세계랭킹 3위 유소연은 꾸준한 기량으로 다승에 가장 근접한 선수로 평가 받는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로 복귀한 장하나를 제외하더라도 양희영과 김인경, 이미립 등도 다승을 거둘 만한 실력자들이다. 여기에 아직 우승은 없지만 언제 우승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상급 기량을 보유한 선수들이 즐비하다.

지난해 신인왕과 함께 평균 최저타수상을 수상한 전인지(28)는 우승 없이 상금순

위 5위에 위치했다. 슈퍼루키 박성현(24·KB하나은행)도 이미 준우승은 수 차례 경험했다. 우승만 남겨두고 있다.

메이저대회 우승을 포함해 2014년 이후 매년 1승씩을 거두고 있는 김효주(22·롯데)와 올 시즌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허미정(27·대방건설)도 3년 만에 정상에 등극을 노린다.

한국선수들은 꾸준함을 상징하는 상금과 평균타수 부문에서 상위권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도 향후 승수 추가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현재 상금순위 1위 유소연(91만2820달러)을 필두로 5위에 전인지(62만10047달러), 6

위에 박인비(51만6542달러)가 올라 있다. 김세영(46만19945달러), 박성현(45만1473달러), 이미립(43만9567달러) 등이 8~10위로 10위 안에 들었다.

평균타수 부문에서도 유소연(69.211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인비(69.314타), 전인지(69.313타), 박성현(69.314타)이 3위부터 5위까지 자리했다.

태극낭자 군단의 파워가 투어 전체에 소용돌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15승을 넘어 20승 고지를 점령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김민근기자

전북도체육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823명 출격

전북도체육회는 오는 8~11일 나흘간 제주에서 열리는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82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축전은 동호인들의 축제로 순위 경쟁보다는 시간과 교류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함께 즐기는 대회의 자리다.

전북 선수단은 검도, 농구, 축구, 탁구 등 35개 종목에 출전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내게 된다.

도 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안전사고 없이 동호인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즐겁고 활기찬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선수단은 개회식에서 9번째로 입장하며 2017 세계태권도대회 개최 및 2023 세계잡버리 대회 유치 홍보에 중점을 둔 입장식을 연출하게 된다.

/김민근기자

정구 국가대표선수단, 순창서 2달 동안 전지훈련

정구 국가대표선수단이 최근 순창 실내체육관에서 입촌식을 열고 차이나킵 국제대회 우승을 위한 담금질을 진행하고 있다.

4명의 코치와 남자선수단 12명, 여자선수단 12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정구 국가대표 선수단은 7월까지 2달 동안 순창에서 숙식을 하며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기간 중 6월 중순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차이나킵 국제대회도 출전하게 된다.

입촌식에 참석한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민을 대표해 정구 국가대표선수단을 환영한다”면서 “순창에서 훈련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입촌식에 참석한 이계왕 대한정구협회장 훌륭한 시설에서 우리 대표선수단이 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순창군에 고맙다”며 “순창은 항상 정구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고향과도 같다”고 마음을 표했다.

한편 순창군은 초등학교부터 실업팀까지 정구팀이 구성되어 있고 정구와 테니스 대회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14개의 하드코트와 8개면의 실내구장 등 인력과 시설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정구대회와 선수들의 훈련지로 각광 받고 있다.

매년 10여개의 정구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이번 국가대표 남자선수단에는 순창군청 정구실업팀 소속 오승규 선수도 포함되어 있다.

/순창=이양원기자

U-20월드컵 잉글랜드, 멕시코 1-0 격파 준결승행

잉글랜드가 슬라키에의 결승골을 앞세워 멕시코를 제압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잉글랜드는 지난 5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멕시코와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월드컵 8강전에서 1-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준결승에 진출한 잉글랜드는 오는 8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잠비아를 꺾고 준결승에 올라온 이탈리아와 결승 티켓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앞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탈리아와 잠비아의 경기는 이탈리아가 3-2로 역전승을 거뒀다.

/김민근기자

한·미 대학태권도대표팀, 태권도원서 합동 훈련 진행

기량 향상·우호 증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한국대학태권도연맹 및 미국대학태권도협회와 함께 양국 대학태권도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호 증진을 위한 합동훈련을 태권도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태권도원에서는 한국대학대표팀 24명과 미국대학대표팀 20명이 모여 태권도 겨루기 훈련과 친선 경기 등의 일정으로 합동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양국 선수들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T1경기장 등에서의 훈련을 통해 기량 외에도 태권도원을 방문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얻고 있다.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 임금별 선수는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에서 한미 대학대표팀 간의 훈련이 이루어져 양국 선수 모두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합동훈련이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한국대학태권도연맹과 미국대학태권도협회에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며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태권도원에 더욱 많은 세계 각국 선수들이 찾아 기량향상과 내적 성장 등에 도움이 되도록 국내외의 태권도계와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는 176개국 1,660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신청

하는 등 최대규모의 대회가 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